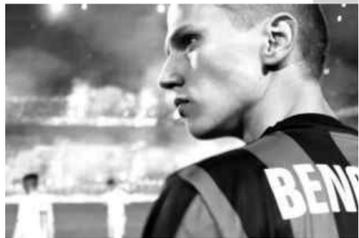


### 삶의 지속성과 연대의 가치

# 스웨덴영화제 열린다

22~25일 광주극장 개막작 '타이거즈' 무료상영·굿즈 증정



'타이거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

대한민국과 스웨덴,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기획된 '스웨덴영화제'가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올해 제 11회를 맞은 스웨덴영화제가 22일부터 25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부산 영화의전당, 인천 영화공간주안, 대구 메가박스 이시아 등에서도 함께 진행된다.

스웨덴영화제 올해 주제는 '삶의 지속성과 연대의 가치'이다.

극영화 3편, 다큐멘터리 4편 등 스웨덴 영화의 최근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총 7편의 작품들로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평등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본다.

이번 스웨덴영화제 개막작은 '타이거즈'(2021)다. 16세 나이로 이탈리아 축구클럽 인터 밀란과 계약해 화제가 된 전직 축구선수 마르틴 벵트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블랙 유머와 독특한 스포츠 세계관을 겸비한 론니 산달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로 현대 축구 산업계 생사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영화 상영 후에는 게스트 토크(인터뷰 영상)가 이어진다.

'클라라 솔라'(2021)는 사람들이 신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고 믿는 40세 여성 클라라가 어머니의 억압적인 보호 아래 수년간 통제당하며 살아오다 조카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이끌리며 성적 욕망에 흔들리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나

탈리 알바레즈 미에센가 감독을 맡았으며 영화가 끝난 후 게스트 토크가 상영된다.

이슬람국가(ISIS) 성노예 여성들의 구출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바야'(2021)도 상영된다.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시리아의 알 홀 수용소에 ISIS의 성노예인 사바야로 갇혀 있는 야지디족 여성과 소녀를 구해 나서는 여정을 그렸다.

또다른 ISIS 관련 다큐멘터리 '적의 아이들'(2021)은 ISIS 테러리스트와 결혼한 딸을 둔 파트리시오 갈베스가 딸 부부가 숨지자 알 홀 수용소에 억류된 7명의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과정을 담은 영화다.

'더 콰이어'(2021)는 감독 아만다 페시칸이 스웨덴의 가장 유명한 합창단을 따라 가스펠의 고향인 시카고로의 여정에 동참하는 다큐멘터리다. 감독은 종교·공동체의 문제에 직면한 합창단의 결단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했다.

이 밖에도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1971)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비에른 안드레센의 삶을 조명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2021), 한 여성이 직면한 다층적인 불안의 근원을 짚어가는 심리극 '노크'(2021)도 상영한다.

스웨덴 영화제 기간동안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무료관람이며 영화표는 영화제 기간 당일 광주극장에서 받을 수 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스웨덴 관련 파우치 등 굿즈를 선착순 증정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호남지식인들의 생활사를 엿보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강연, 20일~10월13일 미로센터

인문학 가운데 생활사를 주제로 하는 분야는 흥미롭다. 시대는 다들 지인정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대체로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지식인들의 삶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정치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고난과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호남지식인들의 삶을 주제로 한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은 '호남 지식인들의 생활사 만나기'를 주제로 한 강연을 마련했다. 오는 20일부터 10월 13일(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까지 미로센터 미로극장1관(광주 동구 예술의거리)이 이번 강연을 한국학호남진흥원이 후원하며, 특히 호남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했다.

지식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을 비롯해 여행기, 일기, 편지 등을 모티브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강좌는 오는 20일 이태호 명지대 석좌교수가 '조선 문인, 그림 그리기에 빠지다'를 주제로 문을 연다. 이어 '조선의 살림하는 남자들'(22일, 정창권 고려대 교수), '고봉, 퇴계와 '편지'를 통해 뜻을 통하다'(27일, 이항준 전남대 교수),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맺은 인연들'(29일, 김태희 전 실학박물관장)이 펼쳐진다.

강연을 주제로 한 강연도 마련돼 있다. 10월 4



이태호 교수



이항준 교수

일에는 정성일 광주여대 교수가 '수려한 자연을 담고 싶다'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어 '호남 대로: 호남선비의 과거길-땅끝에서 한양까지'(6일,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호남지역 선비들의 포로생활'(11일, 김미선 전남대 강의교수), '호남 사림의 스승과 제자, 친구 찾기'(13일, 고영진 광주대 교수)가 진행된다. 마지막 10월 15일에는 해남, 강진 일원 답사가 예정돼 있다.

수강인원은 선착순 80명이며 오는 10월19일까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062-234-2727)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2만원(후원회원 1만원)으로 교재비 및 답사비용 포함.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예측 가능한 추억여행...재미와 감동 동시에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28일 개봉...류승룡·염정아 주연

아내의 첫사랑 찾기 여정에 동행하는 남편이 있다. 진봉(류승룡 분)은 자신의 첫사랑을 찾아달라는 아내 세연(염정아)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다. 아내가 폐암 진단과 함께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첫사랑을 함께 찾아달라고 조르는 아내가 있다. 살아갈 날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세연은 가족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다. 고3 아들은 매일 정성스레 비타민과 도시락을 챙겨주는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중학생 딸은 늘 짜증만 내고, 남편은 무뎠다 못해 매정하다. 세연은 자신을 설레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첫사랑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연의 고향 목포로 출발한다. 목포, 부산, 완도 보길도까지 전국을 누빈 두 사람은 세연의 첫사랑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마주한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중년 여성과 남편의 이야기를 그린다. 국내 최초 주크박스 뮤지컬(인기 대중음악으로 만든 뮤지컬) 영화인 이 작품은 단순한 플롯에 대중에게 익숙한 노래와 안무를 더했다.

신중현의 '미안',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최호선의 '세월이 가면',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등에 맞춰 펼쳐지는 퍼포먼스는 충분한 재미를 준다.

작품 자체는 뮤지컬 영화의 기본 공식에 충실한 모습이다. 대부분의 뮤지컬 영화가 그러하듯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판타지가 펼쳐진다. 세연이 우연히 마주한 서울극장은 진봉과의 첫 데이트 날로, 도로에서 만난 군인들은 진봉의 입대날로 두 사람을 소환하는 식이다. 1980년대를 경험한 중년층 관객이라면 당대 대중가요와 함께 그려진 두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추억 여행을 하는 또 다른 재미를 얻을 수 있다.

정극과 뮤지컬 장면 사이 간극은 류승룡과 염정아 두 주연이 탄탄하게 메워 냈다. 두 사람의 연기는 익숙해서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진부할 수 있는 장면에도 몰입하게 만든다.

최국희 감독은 이날 시사회에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를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면서 "세대를 불문하고 어머니가 있고 가족이 있는 관객이라면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28일 개봉. 122분. 12세 관람가. /연합뉴스

## 경계를 넘는 언어와 의식...김시중 시인 대담

15일 전남대 김남주홀

"압살당한 '자유 광주'를 조금씩이라도 토해내는 것이 일본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머니였다"

재일 동포 시인 김시중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렇게 토로한 바 있다. 그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시집 '광주시편'(1983)을 발간해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 애썼다.

제4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인 재일동포 시인 김시중의 시 세계를 조명하는 대담이 열려 눈길을 끈다.

전남대 KOR컨소시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함께 15일 오후 4시 전남대 김남주기념홀에서 '경계를 넘는 언어와 의식' 대담을 개최한다.

이번 대담은 고재중 시인과 고명철 평론가가 참여해 김시중 시인의 시 세계와 생애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시집 '잃어버린 계절을 찾아서'와 '광주시편'을 모티브로 펼쳐지는 이번 대담은 이주민의 삶과 경계인 그리고 언어적 심미안 등에 대해서도 두루 들을 수 있다.



김시중 시인

이 현지 일본 문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5·18광주민주화운동 소식을 접하고는 '광주시편'을 발간하기도 했다.

한편 김시중 시인은 지난 8월 제4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김시중 시인은 냉전의 분국 세계뿐만 아니라 국가주의와 국민주의에 구속되지 않고 이것을 해방시킴으로써 그 어떠한 틈새와 경계로부터 구획되지 않는 시적 행위를 실천해 왔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